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종교개혁기념주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 전 주 반주자
- 임재의 기원 주님 나라는(X3) 다 함께
- 예배로의 부름 담임 목사
- ▲ 경배의 찬송 15.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건만 늘 채워지지 않는 결핍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 우리의 부질없는 욕망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부요함을 채워 세상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개혁자의 마음을 주십시오. 나 자신의 불의함에 대해 회개하게 하시고 세상의 불의함에 저항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들에 대해 반대하게 하시고, 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셨던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계21:3b,4 인도자
- ▲ 교 독 문 104. 종교개혁주일 다 함께
-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함께
- 2부대표기도 이한림 권사
- 2부응답송 찬양대
- 2부찬양 70. 피난처 있으니 다 함께
- ▲ 성경봉독 출 20:1-7 I. 인도자 II. 박구병 집사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 찬 양 I. 그레도 마중물찬양대
- II. 내 주는 강한 성이요 2부 찬양대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신철 이해경 강요한 원은이 고인성 최소라 권미숙 김수경 김승현 김수진
 김애순 김용길 최영혜 김용진 박효선 김윤수 박상호 김정근 김종철 고영애
 김중현 성귀옥 김희진 박홍재 노진래 최형경 마재국 손의나 민지희 박기영
 박다녔 성지현 송태조 신승진 임성옥 신영옥 오슬기 오자영 우경환 윤미경
 윤성종 김윤정 윤수진 윤정덕 구성실 이경남 이순용 김신실 이순이 이유진
 이응석 이은경 이재문 이재삼 전정현 이주경 안상숙 이치림 강상연 임고운
 오재형 임승동 백혜숙 임찬양 정다운 홍예선 정연경 정연희 조수아 주은경
 최미자 최 숙 최윤선 최윤희 추현영 하현일 김광우 한상균 한상익 정영선
 한완식 임정자 허명선 허신열 강금연 현진 홍소형

감사헌금

김나름 김영호 김태정 노진래 최형경 박진주 이미정 이상도 이순용 김신실
 임은영 임종수 최형서 최혜정 한상수 남해린 한상익 정연선 무명4

생일감사헌금

김보민

녹색꿈헌금

강혜린 김용길 최영혜 윤미경 윤수진 이건호 김보민 장현희 정효진 최다운

■ 집 회 안 내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종교개혁 기념주일 특강 이승무 박사	낮 집 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저녁집회 / 떼제 찬양과 기도회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f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마음으로 읽는 글 ■

함석헌의 <대선언> 중에서

...

내 즐겨 이단자가 되리라
비웃는다 겁낼 줄 아느냐
못될까 걱정이로다
오 나로 늘 새 끝을 듣게 하소서

앞으로 밖에 모르는 몰아치는 영이 이를 명한다
내 감히 자신 있어 지어먹는 맘에서라
내 속에 분명 탄 뜻을 나는 듣노라
나의 나직히잠에는 거슬리는 뜻을

내 기독교에 이단자가 되리라
참에야 어디 탄 끝 있으리오
그것은 교회주의의 안경에 비치는 허깨비뿐이니라
미움은 무서움 설이고 무서움은 허깨비를 낳느니라,

기독교는 위대하다
그러나 참은 더 위대하다
참을 위해 교회에 죽으리라
교회당 탑 밑에 내 뼈다귀는 혹 있으리다
그러나 내 영은 결단코 거기 갇힐 수 없느니라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신진식
전도사 : 장영숙 소속 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한완식
장로 :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광권희 장원호
지휘 : 강석남 안홍숙 한선희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진선 김 린 이상미 김가현
교회 및 차량 관리 : 김현동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되시니
큰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라
이 땅에 많은 마귀들 우리를 해치려하나
겁내지 말고 싸워서 진리로 승리하리라
이 어둔 세력에 굴하지 않고서
다 이겨내어서 큰 승리 얻으리 다 물리치고 승리하리
주 말씀 모두 믿으면 우리가 승리하리라
주 성령 우리에게 임하시면 두려움 전혀 없도다
내 생명 뺏기고 이 재물 뺏겨도 내 영혼 주 앞에 나갈 수 있으니
영원한 천국 들어가리 아멘 아멘

말씀	근본에 충실한 사람들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찬양	413. 내 평생에 가는 길	다 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 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불의한 권위에 복종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십시오. 사된 욕심에 이끌리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충실하게 걸어가십시오.		
다함께:		아멘. 주님,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헛된 우상에게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릇된 욕망을 버리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함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담임 목사

■ 환경칼럼 ■

한살림? 청파생협?

우리 청파교회 지하식당 입구에는 유기농 먹거리와 친환경용품을 판매하는 청파생협이 있어 주일예배 후 많은 교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협이 무엇인지, 우리 주변에 있는 한살림, iCOOP생협, 두레생협 등 다른 생협과 어떻게 다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생협은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Consumer Cooperative)’을 말하며 일상적인 식품과 공산품, 서비스를 서로 나누는 형태의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줄여서 ‘생활협동조합’, 더 줄여서 생협이라 부릅니다. 물건 파는 것을 보면 슈퍼마켓과 비슷해 보이지만 슈퍼는 가게 주인이 주인인 반면, 생협은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생협의 대표적인 예로는 ‘한살림’, ‘iCOOP생협’, ‘우리생협’ 등이 있습니다. 청파생협은 감리교에서 운영하는 ‘서로살림농도생협’의 지부로 청파교회가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청파교인 모두가 교회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직접 출자금과 가입비를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집에서도 인터넷 장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협에서는 국산 유기농, 저농약 상품을 취급합니다. 따라서 물건마다 다르지만, 이마트 등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농산물보다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면 가격이 역전됩니다. 슈퍼마켓은 대량생산, 대량 소비 등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므로 가격의 변동이 크지만, 생협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상호 협동을 통해 유통구조가 단순하고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울여름 살충제 계란사태에서도 생협 계란은 살충제 문제에서 자유로웠을 뿐만 아니라 계란 가격이 폭등한 때에도 안정적인 가격으로 계란을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협동하여 더불어 함께 하는 방식, 돈의 논리가 아닌 생명의 논리로 생협이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더불어 함께 하는 공동체의 삶을 추구하는 청파교인들이 생협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것죠. 조금 불편하더라도 생협을 이용하는 경험을 통해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를 근간으로 싸게 사서 자주 새것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현명한 소비라고 가르치는 자본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방법으로 물건을 생산

하며, 그것을 누가 어떻게 생산하였는지 알고 소비할 수 있습니다. 이윤이 소수 자본가에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유통, 소비에 참여한 모든 이에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동, 돈의 논리가 아닌 생명의 논리로 소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당 옆 작은 공간인 청파생협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또한, 청파생협이 가입된 ‘서로살림농도생협’은 기존 생협과 다른 가치가 있습니다. 한살림 등 조합원 수가 50만이 넘는 대형 생협의 경우 생협의 기본 가치는 공유하지만, 대형화에 따라 대규모 농업을 하는 대농 중심의 공급자, 단순히 안전한 먹을거리의 구매에만 관심이 있는 단순 구매 조합원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국에 수십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매장 운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서로살림농도생협’은 감리교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소농 중심의 공급자와 단순 구매자가 아닌 생협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발맞추어 청파생협의 운영은 청파교회 환경부에서 이윤 추구 없이 무보수로 직접 판매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지 방문 및 체험 행사, GMO 식품 등 안전한 먹거리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환경세미나 등을 통해 청파교인들이 단순 구매자가 아닌 생협의 가치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스위스, 스웨덴 등 협동조합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다양한 협동조합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유기농 식품 등 일부 제품만 생협이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합원 가입 없이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하여 생협의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들은 처음부터 대형 유통매장의 구매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논리는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소한 것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주 예수는 “버린 돌이 모퉁이의 주춧돌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공생과 협동의 논리를 생활 속에서 조금씩 실천하려는 노력이 기독교가 말하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에 장바구니를 챙겨 오셔서 청파생협을 이용하는 것부터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